통권 80호(창립20주년 특집호) / 발행인·양정자 / 발행일·2019년 12월 24일 / 발행처·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기획인쇄·(주)아비컴

법률복지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창립 20주년 기념 '2019 법률구조 국제 컨퍼런스 및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담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의가 강물처럼 이 사회에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 조력 · 소송구조를 해드립니다.

• 상담방법 : 면접, 전화, 서신, 지상, 출장, 온라인상담
• 상담안내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4층 전화 :2697-0155, 3675-0142~3/ 팩스 :3675-0175
전화 : 2646-1611 (교육원)
http://lawqa.jinbo.net / E-mail:lawqa@chol.com

축 사

송상현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우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창립 2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상담원이 빛나는 성과를 올리신 데에는 박종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님과 이사, 감사님들의 탁월하신 리더십아래 양정자 원장님의 경륜, 경험 그리고 열정과 모든 직원들의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 기회에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20년 전에 상담원이 좋은 태몽을 꾸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태어났지만 하도 환경이 척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상담원은 지난 20년간의 업적과 경험을 자양분으로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가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법률복지의 선도자로서 우뚝 설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법률구조는 로마시대이래 '법원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일차적 해답으로서 시대별로 사상적 배경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던 로마시대로부터 주로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배층이나 교회의 충동적 자선에 의존하던 중세시대를 거쳐 근대국가들의 구체적 입법을 통한 권리보장의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법률구조는 과거처럼 정치적 권리의 형식적 보장이거나 정치적 권리와 자선의 혼합물이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구체적 권리로서 이 보호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며, 이런 행위를 통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취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이런 행위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권으로서의 법률구조라는 점에만 인식이 대부분 일치할 뿐 그 구체적 목표, 기준, 방법 및 실천내용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이제 상담원은 성년이 되었으니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을 충분히 듣고 보아야 할 것을 충분히 보면서 단순히 당근과 채찍의 수준을 넘어서 말로 하는 인권보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인간존중을 더욱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 빨리 변하는 바깥세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정의, 평화, good governance,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발전의 충격,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생활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선도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은 계속 개별적 상담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개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우리의 제도, 법의식, 관습, 가치기준 또는 세계의 첨단흐름 등을 항상 분석하고 검토하여 전반적 시스템의 운영에 끊임없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030유엔의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6번째인 평화, 정의 및 포용적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는 법을 공부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바로 직결되어있는 새로운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료법률상담과 구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상담원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더 원대한 목적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그 시발점과 귀결점이 SDG 16번임

을 인식하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추진하고 도달한 입법, 해석, 적용의 방향이야말로 세계 첨단 동향에 들어맞기도 하고 SDG 16번이 터잡고 있는 인권의 실현이 되기도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16번째 목표의 3항은 2030년까지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려면 최근 강조되는 바와 같이 정의에 대한 사람중심의 접근방법을 택하여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16번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가 충족되는 공정하고, 관대하며, 포용적인 열린 사회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스티스 시스템이 포용적이고 열려 있으면 건강, 교육, 주거 및 고용 등 다른 복지 분야와도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맞는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담원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심사숙고해보면 좀 더 사람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정의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을 예방하며, 국가사회경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유엔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억 53백만 명의 인구가 고도의 불공정한 조건에서 살고 있고, 15억 명이 자신의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45억 명의 인구가 법이 제공하고 있는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1억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정의에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장애인과 소수인들도 아주 정의에의 접근이 안 되는 취약계층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빈발하는 분쟁유형은 폭력과 범죄, 토지, 주거 또는 이웃과의 분쟁, 가족법적 분쟁, 금전이나 빚에 관한 문제, 소비자문제 등이므로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상담원도 개별적, 사후구제적 정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거시적 활동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유념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상담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201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 및 기념식 마쳐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201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강사들

상담원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인 2019 법률구조 국제 컨퍼런스 및 기념식이 지난 12월 3일 260여 명의 내외귀빈,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법률구조의 본질과 법률구조 제공자들의 자질(The Spirit of Legal Aid & The Quality of Legal Aid Providers)" 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는 내외귀빈, 변호사, 교수, 법률구조 관계자 및 법률구조와 법률정보 및 정의에의 동등한 접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상담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장인 송정호 변호사의 환영사와 송상현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정상 참석이 불가하여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본원 이사)이 축사를 대독하였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오전 컨퍼런스는 영국, 네덜란드, 필리핀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201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의 첫 발표자인 영국 변호사 타마라 고리엘리 박사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고리엘리 박사는 "정의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변호 제공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무능력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범위의 메커니즘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는 네덜란드 법률구조위원회의 전 CEO이자, 현재 국제법률구조그룹(ILAG) 부회장인 피터 반덴 비겔라 위원장이었다. 그는 "네덜란드의 법률구조시스템과 제공자의 자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공자의 자질은 법률구조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뢰인이 법률구조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구조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자질 관리 및 향상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10년 전 200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에서 자신이 함께했던 기억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상담원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선물을 양정자 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이자 오전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자인 필리핀 아테네오 로스쿨의 길버트 셈브라노 교수는 "필리핀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셈브라노 교수는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법률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NGO단체 등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법률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변호사들 사이에 무료법률구조를 부담보다는 특권으로 만드는 봉사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과대학생일 때부터 법률구조에 대한 정신을 함양하고 법률구조 경험을 통해 공감능력 및 역량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 발표의 시작 전 2019 법률구조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는 제희 퀸텟(JéHee Quintet)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아코디언과 콘트라베이스, 드럼과 피아노가 멋지게 어우러진 연주는 참석자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선물하며 컨퍼런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오후 컨퍼런스는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네 번째 발표자는 빈자를 위한 베트남사법지원협회 타 티 민리 회장이었다. 그녀는 "베트남의 법률구조"에 대해 발표하였다. 타 티 민리 회장은 "2017년 베트남 법률구조법의 개정으로 법률구조의 수혜계층은 확대되었으나 정작 그 계층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법률구조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외계층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갖춘 숙련된 법률구조 제공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들의 실무교육 강화와 책임감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희 퀸텟이 컨퍼런스를 위한 축하연주를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이 질문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호주 캔버라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인 존 보어시그 박사였다. 그는 "호주의 법률구조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률구조는 정의에 대한 접근, 권리 보호 및 사회의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복합적이므로 단순히 법적인 해결만이 아닌 지역사회 및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보어시그 박사는 또한 상담원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양정자 원장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송정호 변호사와 송상현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강사들

■ 특별후원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익 명 특별후원금 2천만원 기부
▶ 운영이사 천계자 – 임종태 부부 특별후원금 8백만원 기부
▶ 이사장 박종렬 특별후원금 5백만원 기부
▶ 부이사장 전원숙 특별후원금 4백만원 기부
▶ 이사 정안지 특별후원금 3백만원 기부
▶ 이사 전성연 특별후원금 2백만원 기부
▶ 이사 송상현 특별후원금 1백만원 기부
▶ 이사 박현순 특별후원금 1백만원 기부
▶ 감사 김행자 특별후원금 1백만원 기부
▶ 부이사장 경수근 특별후원금 1백만원 기부
▶ 아산지부 특별후원금 1백만원 기부
▶ 장유샨 연구원 특별후원금 300달러 기부
▶ 나애숙 한독화장품 대표, 기념행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념물품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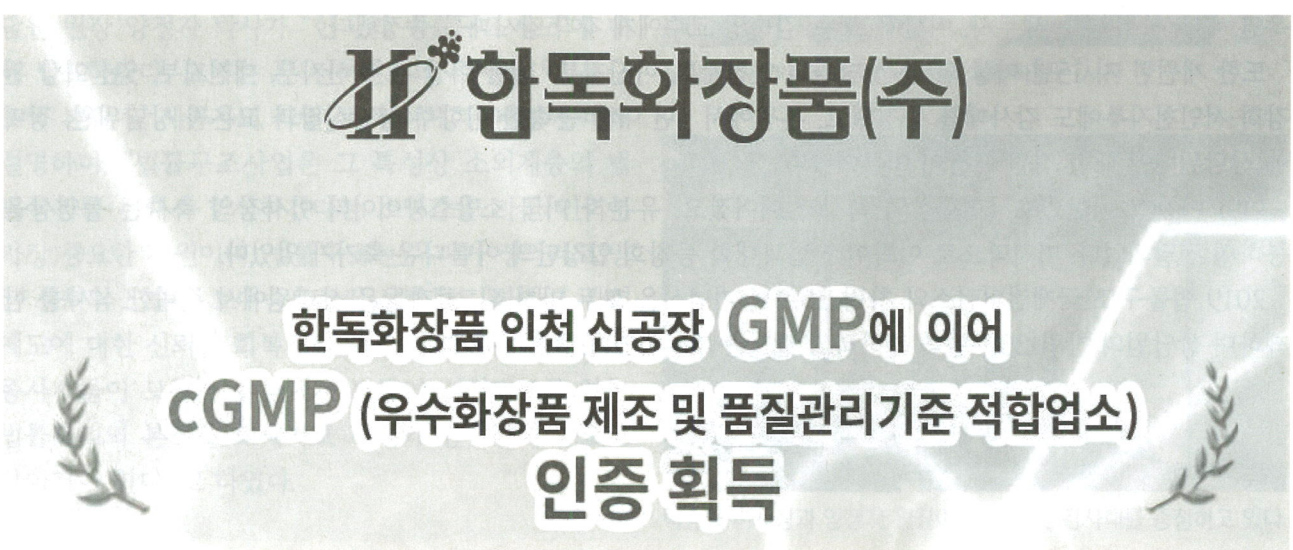
■ 상담원 창립 20주년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축하 화분, 화환 및 축전을 보내주신 분

곽무근(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옥라(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
김효진(이주여성디딤터 센터장)
라석찬(홍익병원 이사장)
라제건(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박요일(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장, 교육원장)
신정자(명예이사장)
여한구(한국상담전공대학원협의회장)
장종현(백석대학교 총장)
인천지부, 아산지부, 부산지부, 대전지부, 익산지부
강화·서인천지부

축의금을 주신 분

고광섭(평생회원)
김동자(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도서관장)
노옥섭(감사)
배순화(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설이숙(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위원)
염효순(운영이사)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성(뉴질랜드 City Pharmacy 그룹 대표)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지부
전남여중고재경동창회 화요모임



감사패 받으신 분

운영위원

고문 김용철

고문 박병호

명예이사장 배경숙

법정이사 김경회

법정이사 송상현

법정이사 최금숙

법정이사 정안지

자문위원 김성숙

법정이사 박현순

법정이사 이교림

법정이사 이재연

법정이사 민경도

감사 김행자

운영이사 김군자

운영이사 유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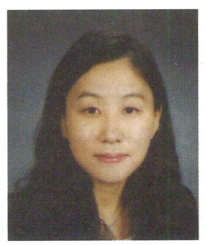
교육원장 박요일

푸른희망담쟁이
시설장 유성애

소송구조변호사

변호사 고상현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이승희

변호사 안성호

외부강사

자문위원 안경환

자문위원 김효선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유은순

교수 여한구

교수 김숙영